



진안중 레슬링부, 전국대회서 메달 획득 성공

진안중학교 레슬링부가 전국대회에서 메달 획득 사상에 성공했다. 지난 31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제32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에서 진안중 레슬링부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그레코로만형 42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한우진은 자유행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희준은 그레코로만형 92kg급에서 2위를 기록했고, 남성광은 39kg급에서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진안중 레슬링부의 경우 각종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올해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전망도 밝게 했다. 진안중은 전교생 120여명이 다니는 작은 학교로 레슬링부에는 10명의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장은성 기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과 봉사활동 펼쳐”

전주제일로타리클럽, 중앙동에 사랑의 성금 기탁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유창성)은 지난 30일 중앙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유창성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과 봉사활동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제일로타리클럽은 매년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성금 및 성품으로 꾸준한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 정기 총회 개최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30일 진안군홍삼약초센터에서 회원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2021년도 사업세출 결산 및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2022년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창열 이사장(진안군 부군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진안군 홍삼산업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진안홍삼 브랜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2년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하고자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홍삼제품 다양화 및 홍삼 판매장 지원사업 등 진안군의 전략사업인 홍삼한방 산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개관

남원시는 지난 31일 영유아와 부모의 맞춤형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이하 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을 지원받아 2021년 12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주 시설로는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시간제 돌봄실, 수유실 등이 있다.



장난감 도서관에는 356종 1400여점의 장난감이 구비되어 있으며, 회원가입(연회비 2만원)후 무료로 대여 할 수 있고 1인 2점까지 7일간 대여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장난감 대여는 매번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의 장난감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위생을 고려해 철저한 세척과 살균 소독을 거친 후 대여되어 청결하고 안전하다. 놀이체험실은 각종 놀이기구 등을 가지고 또래와 함께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용시간은 50분 단위로 운영되고 1회 2전원의 이용료가 있으며, 36개월 이상의 유아가 놀 수 있는 체험실과 36개월미만의 영아가 이용하는 영아 놀이실이 있으나 영아놀이실은 부모가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실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놀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며, 4월엔 감각미술과 요리프로그램을 시작하고 1 프로그램당 5회차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료는 없으며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시간제돌봄실은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서비스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6개월부터 36개월미만 영아가 대상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월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한편 임정숙 여성가족과장은 “센터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게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 함께 키워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 진행

남원시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 김진석)는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관내 초중고생, 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12일 남원시가족센터에서 시작해 관내 학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희망 시간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기본이념 및 필요성, 자원봉사자 자세와 역할 등 기초교육과 자원봉사활동 분야, 자원봉사센터 소개 및 1365 포털시스템 안내, 자원봉사 홍보영상물 상영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 예안교회, 산불피해·우크라이나 성금 기탁

예안교회는 지난 31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강원·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과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지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예안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조금씩 헌금을 모금한 것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피해 주민들과 우크라이나 긴급구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예안교회 오주환 목사는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산불로 주택이 불타버려 임시로 마련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모습과 처참한 우크라이나 폭격현장을 보고 매우 마음이 아팠다”며 “이에 교인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오택립 부시장은 “산불과 우크라이나 폭격 모두 갑작스럽게 일어나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큰 상실감에 빠졌다”며 “성금 지원을 통해 강원·경북의 산불 피해주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안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으로 관내 어양동에 소재하고 있다. 평소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작년에도 시청을 방문하여 익산·남원군을 이용하는 경제적 위기가구를 위해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진안 마이산 탐사·쌍봉사 신도... 총 2톤 백미나눔 펼쳐

태고종 마이산 탐사 주지 진성스님과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은 부처님께 공양한 백미를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탐사쌍봉사 신도들은 이웃을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각각 1,000kg씩 자비의 백미 나눔을 펼쳐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최주연 센터장) 각지역 봉사단장들이 지역의 어르신들과 보훈단체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마이산탐사 나누우리봉사단장 수암 이재현 거사는 “금번 자비의 백미를 나누면서 진안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나눴다”라며 “이웃과 상생하는 아름다운 진안에서의 삶은 행복입니다”고 말했다.

쌍봉사 양행금 섬김 봉사단장은 “함께 나누는 실천은 봉사과 나눔을 배양운동으로 많은 이들이 작은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다”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이웃 부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나눔을 가져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계 올리는 마음으로 나눔을 가져 더욱 기쁘다. /유호상 기자



송천2동, 봄맞이 마을정원 조성사업 진행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이인수)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송수목), 봉우회(회장 정순우)는 지난 31일 관내 시소유 공한지에 묘목을 심는 봄맞이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천동 직원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봉우회 등 자생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석해 송천비닐아파트, 삼성아파트와 송천주민센터 부근 시유지 공한지에 무궁화, 철쭉, 남천 등 묘목 5백 본을 식재했다.

정대선 송천동장은 “봄맞이 마을정원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봉우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마을 공원 꽃 심기 진행

전주시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수옥)는 지난 30일 봄맞이 마을공원 가꾸기 일환으로 주민들의 험터인 장성공원에 철쭉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꽃 묘목을 식재했다.

이날 박수옥 회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세 번째 봄을 맞이하는데 주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꽃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꽃 심기 봉사활동을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혜숙 효자2동장은 “마을 공원 꽃 심기는 화해능력을 돕고 주민들에게는 힐링 공간도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관내 유류자나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화단을 조성해 힐링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신세계 라이온스클럽, 인후3동에 물품 후원

전주신세계 라이온스클럽(회장 고용철)은 31일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와 행복드림 결연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 위기가정 등 소외된 이웃 50세대에 김밥과 이불을 후원했다. 고용철 회장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인 나눔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성 인후3동장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전주신세계 라이온스 클럽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인후3동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 옛날전통찻집, 흥남동 착한가게 32호점 가입

군산시 흥남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흥남동에 위치한 옛날전통찻집을 방문해 흥남동 착한가게 32호점 현판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착한가게에 가입으로 옛날전통찻집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이 성금은 흥남동 허브화기금으로 적립,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옛날전통찻집 대표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흥남동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만큼 불구하고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큰 힘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최정희 민간위원장은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기부에 동참해 주신 옛날전통찻집 대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부금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쓰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흥남동 주민센터는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과 착한가게 동참 대표자의 예우,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흥남동 착한가게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50일 만에 9개 업소가 착한가게에 동참했다. /군산=남현봉 기자